

[왓칭 고등국어 문법] 정오표

● 문제

쪽	오(誤)	정(正)										
11쪽	④ 음성 vs 음운 <table><tr><td>음성(音聲)</td><td> - 자음, 모음으로 나눌 수 있는 분절적 소리 -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 나오는 말소리 - 사람마다 다르게 실현되는 말소리 ⇒ 물리적(경험적)·구체적·공통적 소리 ⇒ 모든 언어에 존재함 </td></tr><tr><td>음운(音韻)</td><td> -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말소리 ⇒ 심리적·관념적(추상적) 개별적 소리 ⇒ 언어마다 차이가 있음 </td></tr></table>	음성(音聲)	- 자음, 모음으로 나눌 수 있는 분절적 소리 -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 나오는 말소리 - 사람마다 다르게 실현되는 말소리 ⇒ 물리적(경험적)·구체적·공통적 소리 ⇒ 모든 언어에 존재함	음운(音韻)	-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말소리 ⇒ 심리적·관념적(추상적) 개별적 소리 ⇒ 언어마다 차이가 있음	▶ 개별적 소리 ▶ 삭제 ▶ 분절적 소리 ▶ 삭제						
음성(音聲)	- 자음, 모음으로 나눌 수 있는 분절적 소리 -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 나오는 말소리 - 사람마다 다르게 실현되는 말소리 ⇒ 물리적(경험적)·구체적·공통적 소리 ⇒ 모든 언어에 존재함											
음운(音韻)	-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말소리 ⇒ 심리적·관념적(추상적) 개별적 소리 ⇒ 언어마다 차이가 있음											
165쪽	<table><tr><td>명사절 + 주격 조사</td><td>*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.</td></tr></table> 예) ㄱ. 나는 저녁에 수지와 만났다. ㄴ. *나는 만났다. • '만났다(← 만나다)'는 대칭 동사로, '주어' 이외에 주어와 짝이 되는 '부사어'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.	명사절 + 주격 조사	*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.	▶ 싸웠다 ▶ 싸웠다(← 싸우다)								
명사절 + 주격 조사	*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.											
166쪽	• '되다' 앞에 부사격 조사가 붙은 말은 '(필수적) 부사어'로 취급하고 있다. 예) * 물이 얼음으로 되다. ➡ (필수적) 부사어 * 물이 얼게 되다. ➡ (필수적) 부사어	▶ 삭제										
180쪽	② 단어의 이어짐 :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접속 조 사에 의해 이어짐. ➡ 출문장 예) * 수지와 민아는 서로 닮았다. ➡ 수지는 서로 닮았다. (X) + 민아는 서로 닮았다. (X)	▶ 부사격 조사										
196쪽 273번	㉠ 색깔이 희기가 문관 같다. ㉡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. ㉢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행복하기 바란다. ㉣ 제비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남쪽으로 떠났다. ㉤ 지금은 우리가 학교에 가기에 아직 이르다.	▶ 눈										
210쪽	㉢ 서술어의 주체(주어가 나타내는 대상)를 높이는 방법 <table><tr><th>실현 방법</th><th>예</th></tr><tr><td>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‘-(으)사-’</td><td>* 세종대왕은 훌륭한 학자이셨다.</td></tr><tr><td>높임의 주격 조사 ‘께서’</td><td>* 할아버지께서 신문을 보신다.</td></tr><tr><td>높임의 접미사 ‘-님’</td><td>* 사장님 모셔 와라.</td></tr><tr><td>특수 어휘 (‘계시다. 잡수시다. 주무시다’ 등)</td><td>* 아버지께서 지금 순대를 잡수신다.</td></tr></table>	실현 방법	예	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‘-(으)사-’	* 세종대왕은 훌륭한 학자 이 셨다.	높임의 주격 조사 ‘께서’	* 할아버지 께서 신문을 보신다.	높임의 접미사 ‘-님’	* 사장 님 모셔 와라.	특수 어휘 (‘계시다. 잡수시다. 주무시다’ 등)	* 아버지 께서 지금 순대를 잡수 신다.	▶ 삭제
실현 방법	예											
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‘-(으)사-’	* 세종대왕은 훌륭한 학자 이 셨다.											
높임의 주격 조사 ‘께서’	* 할아버지 께서 신문을 보신다.											
높임의 접미사 ‘-님’	* 사장 님 모셔 와라.											
특수 어휘 (‘계시다. 잡수시다. 주무시다’ 등)	* 아버지 께서 지금 순대를 잡수 신다.											
265쪽	[제11항 불임 1] • ‘率’은 ‘ㄴ’ 이외의 받침 뒤에서는 ‘률’로 적는다.	▶ [제11항] 다만										

쪽	오(誤)	정(正)									
298쪽	① 밥은 있는데 반찬이 없소. ② 지금 가는 데가 어디인가요? ③ 그 사람은 말을 아주 잘하데. ④ 그는 의지할 때 없는 사람이다. ⑤ 책을 다 읽는데만 이틀이 걸렸다.	▶ 데									
334쪽	• 온 : 보조사(→ 주제) ◆ 온 vs 은 ① 온 : 앞 체언 → 자음으로 끝 & 양성 예) 남 + 온 → 남곤 ② 은 : 앞 체언 → 자음으로 끝 & 음성 예) 물 + 은 → 므른	▶ 주어 실현									
337쪽	◆ 내ㅎ[川] ① 단독 or 관형격 조사 'ㅅ' 앞 → 내 예) 내 / 넷	▶ 탈락									
343쪽	• 한아비 : '할아버지'의 옛말 ⇒ 하나라 '우왕(禹王)' ⇒ 문맥을 고려 → '聖神(성신)'	▶ '육조(六祖)'									
	⇒ 상대(청자) : 문맥을 고려 → '聖神(성신)'	▶ '님금' = '聖神(성신)'									
359쪽	✓ 세종어제훈민정음 VS 소학언해(부자유친)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<th>세종어제훈민정음</th><th>소학언해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음운의 존재 여부</td><td> • 'ㅁ', 'ㅂ', 'ㅇ', 'ㄹ' 등이 모두 사용됨. ① 'ㅁ'의 사용 예) 수^ㅁ비 ② 'ㅇ'의 사용 예) 조정^ㅇ하^ㅇ름, ^ㅇ물^ㅇ배, ^ㅇ물^ㅇ줄 V노미, ^ㅇ변^ㅇ안^ㅇ간 ③ 'ㅇ'(옛이음)의 사용 예) ^ㅇ동^ㅇ지, ^ㅇ박^ㅇ성, ^ㅇ왕^ㅇ노니 ④ 'ㅇ'의 사용 예) ^ㅇ물^ㅇ배, ^ㅇ수^ㅇ곳다..... • 'ㅅ'(반치음)에 사용된 음례가 없음. </td><td> • 'ㅁ', 'ㅂ', 'ㅇ', 'ㄹ'은 소실되고 'ㅇ'은 사용됨. ① 'ㅁ'의 소실 예) 해로^ㅁ불(→ 해^ㅁ불-+-은) 해로^ㅁ문. 해로^ㅁ부나라(→ 해^ㅁ불-+-우니라) 해로^ㅁ오나라 (→ 해로^ㅁ은이라) ② 'ㅇ'의 소실 ③ 'ㅇ'(옛이음)의 사용 예) 가^ㅇ동, 아^ㅇ당 ④ 'ㅇ'의 사용 예) ^ㅇ물^ㅇ배, ^ㅇ수^ㅇ곳다..... • 'ㅅ'과 'ㅇ'이 소실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음례가 없음. </td></tr> <tr> <td>각자 병서</td><td> • 쓰임 예) ^ㅁ물^ㅁ줄, ^ㅁ문^ㅁ줄, 아^ㅁ니^ㅁ호^ㅁ리, ^ㅁ위^ㅁ에, ^ㅁ변^ㅁ안 </td><td> • 소실됨 예) ^ㅁ물^ㅁ줄 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세종어제훈민정음	소학언해	음운의 존재 여부	• 'ㅁ', 'ㅂ', 'ㅇ', 'ㄹ' 등이 모두 사용됨. ① 'ㅁ'의 사용 예) 수 ^ㅁ 비 ② 'ㅇ'의 사용 예) 조정 ^ㅇ 하 ^ㅇ 름, ^ㅇ 물 ^ㅇ 배, ^ㅇ 물 ^ㅇ 줄 V노미, ^ㅇ 변 ^ㅇ 안 ^ㅇ 간 ③ 'ㅇ'(옛이음)의 사용 예) ^ㅇ 동 ^ㅇ 지, ^ㅇ 박 ^ㅇ 성, ^ㅇ 왕 ^ㅇ 노니 ④ 'ㅇ'의 사용 예) ^ㅇ 물 ^ㅇ 배, ^ㅇ 수 ^ㅇ 곳다..... • 'ㅅ'(반치음)에 사용된 음례가 없음.	• 'ㅁ', 'ㅂ', 'ㅇ', 'ㄹ'은 소실되고 'ㅇ'은 사용됨. ① 'ㅁ'의 소실 예) 해로 ^ㅁ 불(→ 해 ^ㅁ 불-+-은) 해로 ^ㅁ 문. 해로 ^ㅁ 부나라(→ 해 ^ㅁ 불-+-우니라) 해로 ^ㅁ 오나라 (→ 해로 ^ㅁ 은이라) ② 'ㅇ'의 소실 ③ 'ㅇ'(옛이음)의 사용 예) 가 ^ㅇ 동, 아 ^ㅇ 당 ④ 'ㅇ'의 사용 예) ^ㅇ 물 ^ㅇ 배, ^ㅇ 수 ^ㅇ 곳다..... • 'ㅅ'과 'ㅇ'이 소실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음례가 없음.	각자 병서	• 쓰임 예) ^ㅁ 물 ^ㅁ 줄, ^ㅁ 문 ^ㅁ 줄, 아 ^ㅁ 니 ^ㅁ 호 ^ㅁ 리, ^ㅁ 위 ^ㅁ 에, ^ㅁ 변 ^ㅁ 안	• 소실됨 예) ^ㅁ 물 ^ㅁ 줄	▶ 봉우유신
구분	세종어제훈민정음	소학언해									
음운의 존재 여부	• 'ㅁ', 'ㅂ', 'ㅇ', 'ㄹ' 등이 모두 사용됨. ① 'ㅁ'의 사용 예) 수 ^ㅁ 비 ② 'ㅇ'의 사용 예) 조정 ^ㅇ 하 ^ㅇ 름, ^ㅇ 물 ^ㅇ 배, ^ㅇ 물 ^ㅇ 줄 V노미, ^ㅇ 변 ^ㅇ 안 ^ㅇ 간 ③ 'ㅇ'(옛이음)의 사용 예) ^ㅇ 동 ^ㅇ 지, ^ㅇ 박 ^ㅇ 성, ^ㅇ 왕 ^ㅇ 노니 ④ 'ㅇ'의 사용 예) ^ㅇ 물 ^ㅇ 배, ^ㅇ 수 ^ㅇ 곳다..... • 'ㅅ'(반치음)에 사용된 음례가 없음.	• 'ㅁ', 'ㅂ', 'ㅇ', 'ㄹ'은 소실되고 'ㅇ'은 사용됨. ① 'ㅁ'의 소실 예) 해로 ^ㅁ 불(→ 해 ^ㅁ 불-+-은) 해로 ^ㅁ 문. 해로 ^ㅁ 부나라(→ 해 ^ㅁ 불-+-우니라) 해로 ^ㅁ 오나라 (→ 해로 ^ㅁ 은이라) ② 'ㅇ'의 소실 ③ 'ㅇ'(옛이음)의 사용 예) 가 ^ㅇ 동, 아 ^ㅇ 당 ④ 'ㅇ'의 사용 예) ^ㅇ 물 ^ㅇ 배, ^ㅇ 수 ^ㅇ 곳다..... • 'ㅅ'과 'ㅇ'이 소실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음례가 없음.									
각자 병서	• 쓰임 예) ^ㅁ 물 ^ㅁ 줄, ^ㅁ 문 ^ㅁ 줄, 아 ^ㅁ 니 ^ㅁ 호 ^ㅁ 리, ^ㅁ 위 ^ㅁ 에, ^ㅁ 변 ^ㅁ 안	• 소실됨 예) ^ㅁ 물 ^ㅁ 줄									

● 해설

쪽	오(誤)	정(正)												
71쪽 137번	⑤ 합성어 '놀이터'의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인 '놀이'는 '놀-(동사 어근) + -이(접미사)'로 분석되는 파생어이므로, ㉔'놀이터'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('놀이')가 파생어(→ 합성어 ✕)인 파생어이다.	▶ 합성어												
120쪽 243번	243. 직접 구성 요소 분석하기 답 ② 마지막 문단을 통해 문장의 직접 구성 요소는 주어와 서술어로 분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먼저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을 통해, 각 문장(㉑~㉔)들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. <table><tr><td>㉑ 지희는 ㄱ [목소리가 곱다.]</td><td>[서술절]</td></tr><tr><td>주어 서술어</td><td></td></tr><tr><td>㉒ (전체 문장의 주어) [소포가 도착했다고] ㄴ 들었다.</td><td>[인용절]</td></tr><tr><td>주어 서술어 서술어</td><td></td></tr></table>	㉑ 지희는 ㄱ [목소리가 곱다.]	[서술절]	주어 서술어		㉒ (전체 문장의 주어) [소포가 도착했다고] ㄴ 들었다.	[인용절]	주어 서술어 서술어		▶ 도착				
㉑ 지희는 ㄱ [목소리가 곱다.]	[서술절]													
주어 서술어														
㉒ (전체 문장의 주어) [소포가 도착했다고] ㄴ 들었다.	[인용절]													
주어 서술어 서술어														
129쪽 262번	262. 안긴문장 이해하기 답 ② ㉑~㉔에 있는 안긴문장의 종류와 기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. []는 '안긴문장(절)'을 표시한 것이다. <table><tr><th>문장</th><th>안긴문장 종류</th><th>안긴문장 기능</th></tr><tr><td>㉑ [누나가 주인임]이 밝혀졌다.</td><td>[명사절]</td><td>주어</td></tr><tr><td>㉒ [삼촌은 농담을 던짐]으로써 분위기를 풀었다.</td><td>[명사절]</td><td>부사어</td></tr><tr><td>㉓ 형은 [동생이 고향으로 돌아오기]만 기다렸다.</td><td>[명사절]</td><td>목적어</td></tr></table>	문장	안긴문장 종류	안긴문장 기능	㉑ [누나가 주인임]이 밝혀졌다.	[명사절]	주어	㉒ [삼촌은 농담을 던짐]으로써 분위기를 풀었다.	[명사절]	부사어	㉓ 형은 [동생이 고향으로 돌아오기]만 기다렸다.	[명사절]	목적어	▶ 삼촌은 [농담을 던짐]으로써
문장	안긴문장 종류	안긴문장 기능												
㉑ [누나가 주인임]이 밝혀졌다.	[명사절]	주어												
㉒ [삼촌은 농담을 던짐]으로써 분위기를 풀었다.	[명사절]	부사어												
㉓ 형은 [동생이 고향으로 돌아오기]만 기다렸다.	[명사절]	목적어												